가습기 성능 제각각… 유지비 최대 40배 차이

소비자원, 13개 제품 품질 비교 평가

난방으로 인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지는 가을·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습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판 중인 가습기의 가습량 등 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13개 제품의 품질(가습량·가습면적·소음 등), 경제성(연간 유지관리비용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대상 13개 제품의 시간당 가습량은 최대 3.3배(182~606ml/h) 차이가 있었고, 이를 가습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12.9~42.9㎡ 수준이었다.

가습방식별로 초음파식은 미로(MH7000)가 267ml/h, 가열식은 르젠(LZHD-H85)이 499ml/h, 복합식은 LG전자(HY704RWUAB)가 606ml/h, 기화식은 샤오미(CJSJSQ02 XYKR)가 433ml/h로 가습량이 가장 많았다.

다이슨(PH05), LG전자(HY704RWUAB) 등 2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겸용으로 활용이 가능했으나, 가습면적과 공기청정면적에 차이가 있어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공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전기요금·필터 교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초음파식 제품은 4640~6420원, 가열식 제품은 7만2750~9만1070원, 기화식 제품은 5330~10만8330원, 복합식 제품은 1만5780~18만9290원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4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 최대 소음(음향파워레벨)은 37~62dB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컸고, 가열식 제품의 경우 처음 물이 끓는 과정에서 52~55dB까지 소음이 높아져 수면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 3개 제품은 99℃의 고온 증기가 분무되었고, 끓임 단계에서는 수조 내부 물 온도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 뜨거운 증기가 분출되거나 제품 전도 시 뜨거운 물이 쏟아질 수 있어 화상사고에 주의가 필요했다.

가습기는 가습방식에 따라 세균 방출·악취·이물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세척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구입 시에는 사용공간·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가습 방식을 결정하고, 가습량·유지관리비용·소음·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고물가 덕에… 급식업계, 3Q 실적 선방

구내식당 수요 몰리며 반사이익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12.8% 증가
현대그린푸드·아워홈도 호실적 전망



고물가로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리면서 급식식자재 업체들이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 아워홈 제공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식품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에 수요가 몰리면서 급식식자재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급식식자재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식음 부문(삼성웰스토리)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60억원,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12.8% 증가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급식 신규 사업장 식수 증가 및 외식업 대상 식자재 물량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호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다른 업체 역시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8일 기준 CJ프레시웨이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126억원, 334억원으로 각각 9.7%, 18.5%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주 확대 및 식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공항 오픈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그린푸드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7% 증가한 6260억원, 410억원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린푸드 또한 고물가로 인해 신규 수주 확대와 급식에서 고객사들의 메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일부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이자 지난 5월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아워홈도 단체 급식 수주 효과, 여행객 증가로 인한 인천공항 내 외식사업 흥행 등으로 호조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물가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호실적을 거뒀지마 급식식자재업체들은 구내식당 운영과 식자재 납품만으로는 향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현재 호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줄고 있고, 시장 파이도 한정적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컨설팅, 케어푸드 등 같은 사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신세계免도 인천공항서 철수

신라 DF1 이어 DF2 사업권 반납
재입찰시 임대료 크게 낮아질 듯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에 이어 두 번째 대형 면세점 철수다.

신세계면세점은 30일 공시를 통해 "고환율, 경기둔화, 주요 고객층의 구매력 감소,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면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계속하기에는 손실이 과도해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향후 명동 시내 면세점과 DF4(패션·잡화) 권역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신세계가 반납하는 DF2 권역은 1·2터미널에 걸쳐 약 4,709㎡ 규모로, 당초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앞서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인천공항 DF1(주류·담배·식품)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신라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법원이 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은 27%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 철수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의무 영업기간 6개월 내 후속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철수로 인천공항의 후속 면세사업 입찰은 기존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독점 구도가 깨지며 임대료 체계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일 회계법인 삼일은 법원 조정 과정에서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홈플러스, 강정브랜드 '솥솥' 출시 1주년 기념 30% 할인 홈플러스는 델리 코너의 강정브랜드 '솥솥' 출시 1주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솥솥 전품목을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으로 30% 할인한다. 할인 적용을 받으면 '솥솥' 메뉴를 1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 모델들이 '솥솥' 강정 출시 1주년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CJ제일제당, 창립 기념 세일 1000개 제품 최대 75% 할인

CJ제일제당은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 '올 세일 페스타(올세페)' 프로모션을 내달 1일부터 열흘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올세페'는 11월5일 CJ제일제당의 창립 72주년을 맞아 한층 더 풍성하게 마련됐다.

'올세페'는 매달 진행하는 '더 세일 페스타(더세페)'에서 할인 혜택을 더욱 확대한 이벤트로, 약 1000여개의 제품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비비고 베이직 포기배추김치', '비비고 왕교자' 등 인기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쿠폰 혜택도 크다. 행사 기간 동안 CJ제일제당은 매일 선착순으로 최대 20% 할인 쿠폰과 적립금 3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구매 고객에게는 11월 내에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을 발급해 이후 장보기 시 배송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올세페' 기간 동안 구매 고객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72명을 추첨, 대표 제품들로 구성된 약 3만원 상당의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